전업주부의 '자식 키우기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Full-Time Housewife's Everyday Child Caring and Education Experience

김 선 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족복지전공

Seonmi Kim
Division of Family Welfare in Gwangju University

Abstract

This ethnographic case-study explores the daily experiences in child-rearing and education among Korean full-time housewives. For this purpose, 11 full-time housewives in their thirties and forties from the middle class were interviewed with an unstructured questionnair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ull-time housewives tend to assume the full responsibility for child-caring and education. Their time is structured around the schedules of caring children and participating in educational programs for children. The most demanding tasks for them include preparing for a preschool, getting the children ready for school, rendering supports for children's schools, extra curricular education, and arranging and offering gift money to teachers. They feel that their husbands do not provide enough supports for child-caring and education. Despite all the negative experiences, Korean full-time housewives put in whatever they have to make sure their children's well-being and to provide the best education possible for their children; the maternal identity plays a role of the utmost importance in them.

Key words : parental beliefs, internal representation, rational authoritative beliefs, distancing beliefs, direct authoritative beliefs

Ⅰ. 서론

소비 자본주의 사회의 헌신적 모성에 대한 담론은 상품화된 이미지를 통하며 모성을 정교화하고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한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며 여성들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 양육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중산층 여성들에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늘 '부족하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반면 상품을 구매할 경제력이 없는 어머니들은 '남들처럼 해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한다(이재경, 2003: 24-25).

이 논문은 전업주부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자녀양육에 관한 질적 연구이다. 현대가족의 성별화된 특징을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전업주부가족에서 자녀양육은 직접적으로 보면 여성의 몫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자녀양육을 놓고 철저하게 분업화된 부부중심 핵가족의 주부에게, 가족과 사회의 중층적 환경이 기대하는 것과 그러한 기대의 수행에서 얻는 개인적 경험의 성격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전업주부가 많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수적으로 대규모 인구집단을 이루고 있다. 2002년 현재 전체기혼여성 11,068,000명 가운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말하는 전업주부는 4,803,000명으로 43%에 해당한다(김선미,2004:29).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을 보면, 2010년에도 51.98%로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므로 전업주부는 지속적으로 대규모집단으로 남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완결된 주제로 수정 보완한 논문입니다.
corresponding author : Seon Mi Kim
Tel. (062) 670-2361, Fax(062)670-2180
E-Mail : yupy1005@hanmail.net

또한 가정과 사회에 대한 전업주부들의 역할과 기능은 과소평가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중요하다. 전업주부의 가정 내 역할과 그로 인한 사회적 효과를 보면, 첫째 가사노동을 통해 가계재정을 보충하고, 사회적으로는 저임금을 유지하게 하며, 친족관계 등 관계관리를 통해 사회적으로 관계망이 유지되게 하고 노약자의 보호와 부양을 통해 불충분한 복지제도를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가족의 대표소비자로서 전문적인 기능을 하여 자본주의 소비사회기구가 작동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셋째, 자녀의 학교교육보조를 통해 공적 교육체계가 운용되게 하며[1] 예능과 체육 등의 교육을 위해 사교육상품에 대한 수요를 만들고 선택하고 구매함으로써 사교육시장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주부개인의 삶을 들여다 볼 때 이러한 다양한 역할 가운데 교육을 포함한 자녀의 양육이 핵심이 되고 있다. 여러 연구(신경아,1997,노영주,1998,윤택림,2000,김명혜,2000,송혜림,2002)는 모성이야말로 전업주부의 정체성의 핵심임을 입증한다. 전업주부의 일상생활은 자녀의 등하교시간과 사교육시간을 중심으로 구조화되며 공간구성 역시 자녀의 행동반경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윤택림(1996:223)의 연구를 보면,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에게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일은 청소이지만,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자녀 양육이다. 자녀 양육에는 학습지도와 수업준비, 학교선택과 학원선택, 학원 데려다 주고 데려오기, 학교방문 및 교사상담 그리고 학교자원봉사활동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육체적 어려움뿐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이 동반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자녀의 교육이 주부의 책임이 될 때에는 자녀의 학업성적은 곧 주부의 능력으로 평가된다. 자녀의 성공이 부부의 인생의 성공이 되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갈 때까지 그야말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전업주부 가족에서 부부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 각각 「소득을 벌어들이는 아버지와 그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수행자로서 각급 교육기관 그리고 공적 사적 기관을 통한 자녀의 교육을 주도하는 어머니」라는 방식으로 전문화하여 분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업주부의 삶의 맥락 속에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경험을 당사자의 시각을 통해 연구한 경우는 아주 드물다. 자녀양육과 교육의 수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경험에 대한 해석을 연구하는 것은 양적 연구를 통해서는 규명하기 어려운 경험세계의 맥락을 보여주는 한 편, 향후 일반화를 위한 양적 연구에 대해 보다 많은 변수들을 추가할 수 있는 탐색적 성격도 가지는 질적 연구가 보다 적절하다. 현재 '주부와 자녀교육'에 관한 질적 연구는 시작단계이다. 주부에게 있어서 자녀교육과 양육의 문제는 여러 가지 주제사이에 포함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다루어지거나 혹은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비교라는 목적에 압도되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성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 윤택림(1996)의 연구에서 자녀교육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 라기 보다는 가정관리, 친족일, 사회활동, 여가활동, 수면과 같은 여섯 가지 활동 가운데 하나로 자리 매겨 비교적 간단하게 다루어졌다. 모성갈등과 재구성에 관한 신경아(1997)의 연구는 모성이 데올로기의 억압적인 측면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경험이 상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심영희(1999)는 고3수험생 어머니들의 경험을 상세히 다루고 있지만 연구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전업주부의 경험으로 확산될 성격의 결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업주부들의 일상생활가운데에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행위 그 자체를 소개하고 자녀 양육과 교육이 전업주부의 삶에서 가지는 의미를 추출하며, 그 가운데 나타나는 전업주부들의 행위성[2]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전업주부가족이 자녀를 기르는 기본적 성격을 살펴보고, 그 후 자녀 양육과 교육행위가 전업주부의 일상생활 스케줄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며 그러한 행위들의 종류와 성격은 어떠한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당사자들의 보고와 해석을 통해 자녀 양육과 교육행위가 전업주부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전업주부정체성의 중요한 구성영역으로서 모성이 가지는 의미로서 드러날 수 있다. 또한 전업주부의 남편이 자녀양육과 교육에 개입하는 방식을 아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통해 전업주부의 경험을 역으로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성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윤택림은 전업주부들에게서 어떠한 행위성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는 전업주부의 일상생활이 모성이데올로기에 구조화되는 억압적 성격을 드러내고, 그러한 억압적 요소에 의해 전업주

1) 문옥표(1997:218)는 "실제로 우리나라 초·중·고 교과과정이 암묵적으로 어머니들의 무보수노동에 의존한다는 전제하에 짜이고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2) 행위성(agency)은 자신만의 삶을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김창대,2004:20).

부의 삶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규명하고는 있지만, 인간은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가치와 처지에 맞게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주체로서 살고자 한다는 전제를 가진 새로운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3]. 만약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교육 경험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려는 전업주부들의 행위성이 규명된다면 전업주부 내부의 다름도 규명하게 될 것이다.

Ⅱ. 연구방법 및 제보자의 특징

1. 연구방법 및 절차

기존의 연구에서는 가정관리자인 주부들이 가정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 현상을 기술하며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가정 내의 자원관리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고, 또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를 평가하는 사람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한 연구의 흐름 속에는 가정관리현상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 있고 가정관리자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보다 부차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가정관리의 주체인 전업주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영역으로서 자녀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를 연구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목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여성을 연구할 때 여성주의 문화기술지와 같은 질적 방법론이 적절한 이유는 여성-행위자의 입장에서 행위자의 삶을 구성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 낼 수 있다는 점(윤택림,2002: 203-204)과 보다 복잡한 삶의 양상을 개방적인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조용환,1999:20)을 들 수 있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둘러싼 일상생활의 연구인 이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해 당사자의 경험과 해석 그리고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질적 방법의 일종인 문화 기술적 사례연구를 활용하였다. 자료는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집하였는데 제보자의 가정에서 면접을 반복 실시하여 참여관찰의 효과도 얻고자 하였다. 제보자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30·40대 전업주부로 하고 소득의 획득을 위해 취업을 해야 하는 부담에서는 벗어나 있는 전형적인 전업주부의 계층인 중산층[4]으로 제한하였다. 면접은 Spradley(이희봉 역, 1996:37-53)의 발전식 연구 사이클에 따라 대강의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 사이클을 시작하고 「자료수집 및 기록→ 자료 분석과 보고서 작성→ 이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면접 과제를 선정하는」 사이클을 반복하였다.

면접대상은 알음알음으로 소개를 받았는데, 기꺼이 면접에 응하고자 하며 이야기하기를 즐기고, 통상적인 전업주부의 언어를 구사하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면접은 먼저 전화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승낙을 얻어 시간약속을 한 후, 제보자의 집에서 실시하였고 녹음기로 거의 모든 면접내용을 녹취하였다[3]. 자료의 수집은 2003년 4월부터 2003년 9월 사이에 이루어 졌는데 추가적인 자료나 면접 자료의 녹취과정에서 재확인할 일이 있는 경우 전화면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면접시간은 대부분 1시간 반에서 세 시간을 넘지 않았으나 제보자가 이야기에 몰두한 한 사례의 경우 여섯 시간이나 소요되기도 했다.

전업주부의 정체성의 구성영역을 규명하고자하는 연구의 일부인 이 연구는 먼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되었다. 그에 대해 제보자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통해 가지는 역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꺼내 놓았다. 제보자들은 연구자도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요 주부라는 사실에서 쉽게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털어놓고 정리해보는 것에 대해 아주 깊이 몰두하였다. 제보자들은 정체성과 관련된 일상생활의 경험을 바로 어머니와 가정관리자 그리고 아내와 며느리 및 딸이라는 역할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일상생활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통상적인 한 주일간의 시간표를 연구자와 함께 작성하고 또 한 달간의 지출내역도 연구자와 함께 기록해 보았는데 이러한 주제에 대해 제보자들은 커다란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네 가지 영역-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 살림살이하는 가정주부, 남편의 아

3) 이 연구는 빈곤여성가장이 빈곤상황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재구성하기 위해 전략을 사용한다는 결과를 낸 연구(옥선화·성미애·배희분·이재림,2002:228)와 인간에 대한 아니 여성에 대한 동일한 전제를 공유한다.

4) 봉건제의 물질적인 기반이 무너지고 공장제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남성의 노동은 사회적인 임노동으로 여성의 노동은 무보수 가사노동으로 이분화 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중산층 여성들은 부와 지위의 상징적인 지표이자 정서적인 인간관계의 전문가로서 '가정 전담 주부'라는 특수한 형태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 전문적 직업 활동에 몰두하는 남편을 쉬게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전념하는 가정 관리자인 주부가 중심이 되는 핵가족이 현대의 이상적 가족으로 대두되는 것이다(조혜정, 1997; 55).

내, 시댁과 친정의 며느리요 딸- 가운데 한 가지 영역인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5]. 제보자들은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내놓았으며, 이야기의 중심주제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랐지만 주된 관심은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고 우수한 성적을 내며 좋은 대학에 입학하여 좋은 일자리를 얻게 하는 것이었다.

2. 제보자의 개인적 특징

이 연구에 참여한 전업주부는 모두 11명으로 제보자들의 개인적 특징은 <표 1>와 같다[6]. 연령은 36세에서 46세까지이며 30대 후반이 여섯 명이고 40대전반과 중반이 다섯 명이다. 면접 당시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자녀가 한 명인 제보자 두 명과 자녀가 세 명인 제보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여덟 명의 제보자들은 자녀가 모두 두 명이다. 자녀들의 나이는 3세부터 대학교 1학년생인 20세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학교에 가기 전 자녀만 가진 제보자가 고현정 씨와 이유재 씨 그리고 정하진 씨이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만 둔 제보자는 이정민 씨와 최현지 씨 그리고 김미현 씨 및 강현선 씨와 심희경 씨이다. 그 밖에 서진화씨는 대학생자녀와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고, 양선희씨는 고등학생 자녀와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 또한 윤미숙 씨는 중학생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

학력은 지방소재 상업고등학교 졸업이 두 명, 대학중퇴가 한 명, 지방소재 4년제 대학졸업이 세 명 그리고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졸업이 다섯 명이다. 결혼연령은 24세부터 27세가 보편적이고 31세와 37세가 각각 한 명이다.

전업주부가 된 경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취업경험이 없이 전업주부가 된 경우는 정하진 씨와 고현정 씨, 그리고 최현지 씨와 김미현 씨 서진화 씨이다. 둘째, 결혼 전 취업했다가 결혼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하여 전업주부가 된 경우는 심희경 씨, 윤미숙 씨, 이정민 씨, 강현선 씨가 있다. 그러나 결혼 전에 직장을 떠난 이 네 제보자와 달리 양선희 씨와 이유재 씨는 결혼 후에도 각각 교사와 방송국 작가로서 취업을 계속했지만 '출산과 양육부담을 피하지 못하고' 취업을 중단한 경우이다.

<표 1> 제보자의 특성

이름	연령	학력	결혼 연령	자녀 성별 (연령. 학교)	취업경험	남편의 직업(연령)
서진화	46	4년제 신학대학	25	딸(20세/ 대1) 아들(14세/ 중2)	없음	외국인회사 사장(49)
이정민	39	대학 중퇴	26	딸(12세/ 초6) 아들(10세/ 초3)	건축회사사무직 (결혼 전)	건축회사 팀장(43)
최현지	41	4년제대학 식품영양학	27	딸(10세/초3) 딸(8세/초1)	없음	증권회사 과장(43)
양선희	42	4년제대학 수학교육과	25	아들(16세/ 고1) 아들(14세/중2)	중등교사(출산으로 그만둠)	치과의사 (42)
김미현	38	4년제여대 경제학	26	아들(11/ 초4) 아들(8/ 초1)	없음	전문대교수 (42)
고현정	37	4년제여대 수학과	31	딸(6세/ 반일제미술학원)	없음(남편 실업중 과외교사 1년)	건설회사 직원(37)
이유재	43	4년제대학국문과	37	아들(6) 아들(4)	방송국작가 (2남출산까지)	사내벤쳐 부장(44)
강현선	36	4년제여대 불문과졸	25	아들(10세/ 초3)	항공사공항근무 (결혼전 3년)	치과병원장(37)
윤미숙	43	고졸	27	딸(16세/ 중2) 딸(15세/ 중1) 딸(10세/ 초3)	반도체마케팅회사7년근무(결혼과 동시에 그만둠)	영세소기업 사장(46)
심희경	36	고졸	24	딸(10세/ 초3) 딸(12세/ 초5)	반도체회사 생산직2년 / 일반회사 총무일 2년	통신회사 차장(39)
정하진	38	4년제대학음대졸	26	딸(6세/ 유치원) 딸(3세)	없음	가정의학과 의사(43)

5) 가정관리자 아내 그리고 며느리와 딸의 정체성과 관련된 일상생활 경험은 개별적인 논문으로 다루고자 한다.

6) 제보자들의 인명은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다.

양선희 씨는 남편의 강요로 교사직을 떠나 취업을 중단한 경우로 결혼생활 내내 두 자녀를 기르는 교육자로서 거듭나고자 안간힘을 쓴 경우이다. 이유재 씨는 자신의 존재감을 취업을 통해 확인한 경우인데, 양육자인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취업을 중단하고 양육을 전담해 왔다.

남편의 직업은 치과의사, 가정의학과 의사, 외국인 회사 사장, 영세 소기업 사장, 건축회사 팀장, 증권회사 과장, 전문대 교수, 건설회사 직원, 통신회사 차장, 사내벤처 부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보자들에게 남편의 직업은 퇴근시간 후 아내나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성격과 양에 영향을 주고, 또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물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소득과 그 전망에 영향을 준다. 건설회사 직원이나 팀장 그리고 증권회사 과장 전문대 교수는 월평균 300만원정도의 수입을 가져오고, 사내벤처 부장은 월 500만원정도 그리고 외국인회사 사장과 소기업사장은 월 7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그리고 개업의는 최소 8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수입을 가져온다. 알음알음으로 소개받을 때 제보자들의 남편의 직업과 소득을 통제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소득은 심층적인 이야기가 가능해 진 후에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소개해 주는 주부들과의 경쟁적 성격 때문에 소득처럼 주부들 사이에 서로 묻지 않는 몇 가지 측면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수입이 증가할수록 아내가 통제할 수 있는 비율이 낮았는데, 월 소득 300만원인 모든 가계에서는 총수입을 아내들이 관리하지만, 월 소득이 높은 정하진 씨는 남편수입 1,000만원 가운데 약 200만원 정도를 살림하는데 사용하였고, 박현선 씨의 경우 남편 수입 2.000만원 가운데 450만원을 받아 살림비용에 충당하였다. 두 경우 모두 나머지 돈은 남편들이 관리하며 재테크도 남편이 주도하였다.

Ⅲ.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둘러싼 전업주부의 일상생활 경험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둘러싼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경험을 살펴보되, 먼저 부부간 분업의 기본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전업주부의 자녀양육의 일상적 경험에 대해 살펴본 후 끝으로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부간 분업의 성격

전업주부가족에게는 자녀양육과 교육행위가 보다 성별화되어(gendered), 부부간 분업과 전문화가 보다 고도화되어 있으며 '돈 잘 버는 아버지, 자녀교육 전문가인 어머니'가 요구된다. 물론 아버지가 교육에 관심을 보이기를 요구하거나 어머니가 돈을 벌기를 요구하는 상황도 있다. 모자라는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취업을 고려하는 심희경 씨와 이정민 씨의 남편은 다른 제보자의 남편들에 비해 소득이 낮은 편이다.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간의 기대는 서로 그 성격이 다르다.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을 보면, '남편이 자녀에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었기를 바라고'(최현지 씨), '공부하는 본을 보여주기를 바라고'(서진화 씨) 또 '귀가 후 책이라도 읽는 생활'(대부분의 제보자들)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대에 맞게 이정민 씨 남편처럼 초등학교 6학년인 딸에게 아무리 늦어도 수학공부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주 늦게 귀가하는 경향이 있고[7] 귀가 후 휴식을 원하기 때문에 아내들의 기대는 채워지지 않는다.

한 편 자녀교육에 남편이 직접 개입하기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간접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다. 제보자들은 자녀교육의 동역관계로서 남편이 매일 의논상대가 되어주기를 바라는데 남편들은 '이야기만 꺼내면 귀를 닫는다'고 한다. 이로부터 남편들은 자녀교육을 둘러싼 분업관계를 고정적인 것으로 놓아 역동적인 의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보자들의 이야기이다. 전업주부아내에게 비친 아버지로서 남편의 모습은 자신의 의무를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과 등치시킨다.

아내가 이해하기로 남편이 자신에게 바라는 기대는, 학교교육보조와 사교육 등을 전담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촌지는 동조하거나 묵인함으로써 어떻게든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양선희 씨의 경우 평소에는 아내에게 자녀교육을 전적으로 맡

7) 남편의 늦은 귀가는 성별분업구도 위에서 움직이는 한국사회 직장문화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남편의 개인적 노력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현아(1994)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남편의 직업노동시간은 평일 12시간이었고, 이로 인한 문제로 남편들은 자신의 피로회복문제와 스포츠/여가시간의 부족, 생활여유부족, 가족단란시간 및 자녀와의 시간 부족 순서로 언급한다. 반면 부인들은 남편의 건강문제, 자녀와의 시간부족, 가족단란시간부족, 가족식사시간의 부족, 남편과 취미생활/스포츠를 할 시간 부족, 부부대화시간의 부족 순서로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대체로 아내가 남편보다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

긴 것 같았지만, 특수목적고 입시에 실패하자 강하게 책임을 물어왔다고 하는데 이는 남편은 자녀교육에 있어서 총체적인 감시자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업관계에서 부부의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자녀교육의 성과이며, 그 전면의 담당자는 아내요 궁극적인 감독은 남편인 것이다.

2. 전업주부들의 일상생활가운데에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행위

심층면접 자료와 한 주일간의 시간사용표[8], 그리고 월별 지출표를 분석한 결과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둘러싼 전업주부의 일상생활 경험은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과 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업주부의 생활시간표는 자녀뿐 아니라 남편이 가정생활 속에 개입되는 방식과 그에 대한 평가도 반영하고 있다. 전업주부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자녀 양육과 교육 경험을 학교가기 전 자녀를 둔 경우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자.

1) 학교가기 전 자녀를 둔 경우 ; 양육부담 그리고 조기 교육

학교가기 전 자녀를 가진 정하진 씨, 이유재 씨, 고현정 씨는 다른 제보자들에 비해 보다 많은 시간을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 세 제보자의 생활시간표는 아이의 유치원 등·하원 시간을 축으로 한다. 자녀가 둘인 정하진 씨와 이유재 씨는 큰 아이가 유치원에 간 오전시간에 둘째아이를 돌본다. 이유재 씨는 설거지와 빨래를 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정하진 씨는 파출부가 청소와 빨래를 하는 사이 둘째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반면 고현정 씨는 자녀가 하나이므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그 시간에 잠시 누워서 충전을 한 후 반드시 청소와 빨래와 설거지를 한다. 세 제보자 모두 아이가 돌아올 때 마중 나가서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

그러나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후 이 세 사람이 보내는 시간은 '교육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아주 다르다. 먼저 정하진 씨는 주로 두 아이의 사교육 스케줄에 따라 움직인다. 아이들을 최대한 '좋은 그릇'으로 기르고자 하여 정하진 씨는 여러 가지 사교육을 활용하고 있다. 정하진 씨는 매스컴에서 유아교육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좌뇌와 우뇌의 고른 발달'을 사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학교에 가기 전에 '공부를 놀이 하듯이 익숙하게 해 놓으면 아이들이 학교에 수월하게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정하진 씨의 큰 아이는 평일 오후 시간과 토요일 오전 시간을 활용하여 여섯 가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작은 아이는 금요일 오전과 매일 오후를 활용하여 네 가지 종류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

<표2>에서 정하진 씨의 일주일간 시간표를 보면, 정하진 씨는 두 아이의 사교육을 중심으로 생활시간을 구조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전에는 큰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난 후 작은 아이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큰 아이가 귀가 한 오후에는 두 아이를 '따로 또 같이'하여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

정하진 씨가 한달 동안 지출하는 사교육비[9]는 큰 아이는 유치원비 3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0만원 작은아이는 44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은 정하진 씨가 한달에 관리하는 금액 '250만원정도'의 절반에 가깝다. 정하진 씨는 집으로 방문하는 사교육 교사들을 맞이하고 아이들이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을 하거나, 사교육기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수업시간 동안 밖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며 다른 엄마들과 정보를 교환한다. 정하진 씨는 최근 의사인 남편의 병원에 환자가 감소하여 소득이 줄자 다른 부분의 소비는 삭감했지만, 아이들 교육비만큼은 줄이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만큼 자녀교육은 사교육이라고 할지라도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정하진 씨는 저녁시간이 되면 아이들을 위하여 남편과 함께 운동을 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 대학에서 비올라를 전공한 예술가인 정하진 씨는 주말을 이용해 백화점 문화센터나 공연장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연극, 영화 등을 관람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정하진 씨는 "어린 시절 제 부모님은 이런 곳을 자주 데려가 주시지 않았으나, 한 번 가면 너무나 신선한 자극을 받았다"고 한다.

한 편 고현정 씨는 '아이가 온 후 눈을 떼지 않는다'고 한다.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에 한 시간씩 월 8만원하

8) 본문에 생활시간표를 제시할 때 제보자가 주도하여 그린 생활시간표를 제시하고 생활시간표를 그리면서 나눈 이야기도 첨가한다는 원칙을 사용하였다.

9) 김유경(2004) 의 연구에 의하면 취학적 교육상품의 형태는 유치원/어린이집, 그러한 기관에서 방과후 활동/ 학원 교습/과외교습/학습지/교재/온라인 학습 등이며, 주부들이 그러나 교육상품에 거는 기대편익은 조기 자극 동조 취학 준비하고 한다. 연구결과 엄마들은 소신형, 조기자극 중시형, 동조모방형, 교육상품맹신형 등의 형태를 띠었다고 한다.

<표 2> 정하진 씨의 생활시간표

구분	오전 7시 기상	오후 2:30 큰 아이 하교	저 녁
월	8:30 큰 아이 유치원 등교 10:30 화수목 교회모임 가기. 늘 작은아이 동반	- 하원 직후 큰 아이 피아노 - 친구만나기 연극관람 - 교구가지고 애랑 놀기	6:30 식사 7:40-8:30 먹고 치우기 9:30 운동/반드시 한 권이라도 책읽어주기 남편은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 이외의 가사노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함. * 본인이 일 주 시간표를 적은 바에 의하면, 저녁 시간은 없었다. 혼자 관리해야 하는 시간이 오전과 오후라고 느끼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화		5시 큰 아이 홈스쿨; 몬테소리	
수		4시 큰 아이 영어공부방(주2회) + 교구학습 /작은 아이 한글 + 교구학습	
목		4시 큰 아이 미술학원 데려가서 함께 있다 옴	
금	작은 아이 '브레인스쿨' 데려갔다 데려옴. 1주 한 시간	4시 큰아이 영어공부방 +교구학습 작은아이 교구학습	
토	큰 아이 '브레인스쿨' 데려갔다 데려옴. 1주 한 시간 그 시간에 작은 아이 '아담 리즈'(수학놀이)	놀이터가기 5시30분 남편 귀가	"주말에는 밥하기 싫다." 외식을 남편도 기꺼이 해준다.
일	주일 교회 예배(남편은 집에서 수면 취함)	시댁방문 또는 연극관람.	

는 영어그룹과외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가거나 근처에 있는 백화점 두 곳과 할인점 한 곳을 번갈아가면서 들른다. 고현정 씨는 아이를 데리고 이런 곳에 가는 것이 "추울 때 더울 때 아이를 놀이공간에 맡겨놓고 쇼핑도 하고 잠시 쉬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이런 점을 보면 유아를 가진 전업주부가 아이를 데리고 언제든지 찾아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함을 알 수 있다. 고현정 씨는 그 밖에 다른 사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예전에 발레학원에 아이를 보낸 적이 있는데 발레학원이 없어져 이제 그만하게 되었고, 시작하면 끝까지 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잘 시작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면서, 자신은 엄마역할에 그다지 몰두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이유재 씨는 오후에는 날씨만 좋다면 매일같이 세 시간정도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도와주고, 저녁에는 두 아이가 학습지를 하도록 하거나 책을 읽어준다. 큰 아이만 유치원과 태권도장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이유재 씨의 큰 아이는 방송사문화센터 영재프로그램에서 테스트를 받아 영재로 선발됨에 따라, '사회성이 발달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월 21만원을 들여 아이를 그 영재 프로그램에 보낼 계획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유재 씨는 아이를 데리고 문화센터에 다녀야 한다. 또한 방송국작가를 지낸 이유재 씨는 한 달 한 번 정도 박물관이나 고궁에 데려가는 것이 아이의 고른 인성발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유재 씨는 늦게 결혼하여 낳은 두 아이가 '공부를 잘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연과 친하고 인간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표3>에는 이유재 씨의 한 주일간 시간표가 제시되어 있다. 이유재 씨 역시 큰 아이의 유치원 등·하원 시간을 일상생활시간의 축으로 삼고 있는데, 오전 시간은 가사노동과 작은 아이와의 산책에, 그리고 오후 시간은 두 아이의 운동과 숙제 봐주기에 주로 할애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세 제보자는 자녀교육에 대하여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지만 자녀를 교육시키는 방식이 서로의 가치관에 따라 그리고 배경에 따라 다르다는 데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정하진 씨는 유아교육에 관한 대중매체의 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현재의 가계소득이 높고 본인이 많은 사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 그러나 고현정 씨는 소득을 가족들의 의류구매에 주로 쓰고 외식비로 지출하면서 자녀의 사교육에는 많이 할당하지 않는다. 한편, 이유재

<표 3> 이유재 씨의 생활시간표

구분	오 전	오 후	저 녁
월 화 수 목 금	06:30 기상, 아침준비 07:30 남편출근(국밥이나 흑임자죽)시킴.아이들 깨워 아침 밥 먹이기 08:16 큰 아이 유치원차에 태워 보내고 작은 아이와 산책 10:00 설거지, 빨래 "장난이 아님"	12:00 작은아이 점심먹임 2:16 큰 아이 마중과 간식 2:40-3:00 아이들이 졸라서 세 시간 동안 자전거 타기 6:00 저녁 준비 7:00 식사 후 숙제를 같이 해주고 9시에 취침	남편 : "일찍 들어오는 일이 가뭄에 콩나듯(평균 10-11시). 일찍 오는 날은 기념일, 매일의 일상이 힘들지 않으면 되는데, 힘든 날은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의 늦은 귀가가 짜증이 난다. 물론, 책임자로서의 근면은 이해한다."
토	10:30 남편은 백두대간을 타는 모임에 참여 1박2일 다녀옴 ; 남편회사의 근무 원칙이 격주 휴무이므로 필요할 때 휴일을 사용함. 그렇지 않은 날에는 출근하는데 오후 7시에 만나서 대형할인점에 가서 저녁도 먹고 몰아서 쇼핑을 하면 밤 11시 정도 됨.		
일	아빠가 없는 날에는 차가 없으니 집 주변을 맴돈다.		

씨는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문화적 소양을 살려 아이를 직접 가르치고 체험위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유재 씨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생활비가 여유롭지 않아 그렇기도 하지만, 사교육의 효과를 그다지 믿지 않으며 뒤늦게 낳은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것도 목표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세 제보자의 이야기에서 공통되게 드러난 점은 학교에 가기 전 자녀를 둔 제보자들은 자녀 양육의 부담을 과중하게 느끼고 있고, 그러한 부담은 어길 수 없는 시간사용과 육체적인 피로에서 나타나며, 교육에 관한 압력이 학령 전부터 시작됨을 볼 수 있다. 제보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양육의 부담이외에 자녀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를 일찍부터 체험시키며, 학교교육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사교육을 제공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자녀가 일생동안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또는 최소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엄마의 역할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전업주부가 가진 자원의 크기나 교육에 대한 가치관, 문화적 자본,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평가는 전업주부의 자녀양육과 교육을 다르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경우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가진 제보자들은 자녀의 등·하교시간에 사교육시간이 부가되면서, 시간사용에 있어서 훨씬 더 융통성이 줄어든다. 제보자들이 자신들을 엄마로 규정하는 데에는 '자녀들이 학교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는 것'과 '사교육을 꾸리고 아이들을 챙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교육과 어머니가 관련되는 방식에 대해 Ann Allison(1996:12)은 학교가 엄마의 역할모델을 만들어 낸다고 보고 있다.

> 학교는 직접적으로 어머니를 생산하기도 한다..... 일본 어머니들의 삶은 바로 어린이들의 가정생활과 놀이시간 그리고 일상성 속으로 학교관례(practice)를 가져오는 수행자이다. 어머니는 이러한 역할과 관련하여 두려움과 의심과 관심으로 짐이 무겁다. 소위 '교육엄마'가 되는 것은 단순히 어머니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니며, 어머니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전후(戰後) 일본의 노동시장의 정치·경제적 상황 안에 자리하고 있는 학교체계와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표시한다. 어머니들로서의 삶은 마치 아이들이 그렇듯이 초기부터 후기까지 설계되어 있으며 어머니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보자들의 일상생활을 볼 때, 자녀가 학교에 들어간 후 전업주부는 자녀 교육위주로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어머니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강현선 씨는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녀와의 동일시가 더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

> "자식하고 나하고는 처음에는 유치원 보낼 때만 해도 ○○는 ○○ 나는 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되니까 점점 ○○의 일거수일투족이 완전히 내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점점".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분석하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경우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경우는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가 좋은 시작을 가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그를 위해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고 좋은 학습 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사를 움직여서 교사로 하여금 자녀에게 동기를 부여하게 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사교육의 의미는 향후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탐색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자녀들의 성적이 윤곽이 잡히는 중·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학부모회 참여나 촌지와 같은 주제는 퇴조한다. 이는 관심의 감소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이러한 주제에 관한 일정한 태도형성이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교육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고, 어머니는 사교육을 주도하는 전문가로 거듭나며 공교육은 다른 아이와의 차이 또는 대학입시에서 자녀의 성공을 예측하는 척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리 잡는다.

(1) 학교교육보조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아이들이 학교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아이들의 잠을 깨워주고 아침식사를 해주고 등교를 도우며 숙제를 돌봐주었다. 다음 <표 4>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미현 씨의 생활시간표가 제시되어 있다.

김미현 씨의 예에서 보듯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제보자는 학부모회에 참석하며 소풍가는 일이나 학교주변 교통정리 등을 도와줌으로써 학교일을 돕고 있다. 전업주부 제보자는 학부모회를 통해 '다른 엄마들과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행동방식을 찾아내며 교사와의 접점을 찾기'도 한다. 김미현 씨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안 불러줘서 그렇지 학교에서 부르면 언제라도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최현지 씨는 '부자동네에서는 학급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서 엄마들이 경쟁적으로 돈을 내지만 자신은 돈이 없어서 몸으로 때우는 일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큰 아이가 고등학교 때 반장을 해서 학부모회를 나간 서진화 씨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학부모회에 대한 관심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국한된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엄마는 자신이 노력해서 교사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고, 이렇게 끌어낸 교사의 관심은 다시 자녀가 향후 공부를 잘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심희경 씨는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더 이상 학부모회에 나가지 않는다. "내 아이만 잘 되게 하자고 하는 것이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그만 두었다"라면서 심희경 씨는 "해봤자 별 효과가 없었다"고도 말한다. 즉 학부모회 지원을 통해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

<표 4> 김미현 씨의 생활시간표

구분	오전: 가사+자기시간	오후: 자녀 돌보기/공부시키기	밤: 자녀와의 시간
월 화 수 목 금	7:00-7:20 기상 8:30 아침식사 마치고 아이들 학교 보냄 9:30 청소 끝냄. 아침에는 청소기를 돌리고 저녁에는 걸레질 10:00-12:00 목욕탕에 감(주3회) (목욕 가지 않는 날은 쇼핑: 할인점이나 백화점) 12:00-1:00 점심(가끔 외식)	1:20 작은아이 학원 2:00 큰아이 학원 3:00 아이들 둘 다 귀가 3시-5시 둘 다 피아노 4:20 큰아이 침 맞히러 감 5:20 작은아이 태권도 6:00 큰아이 데리고 귀가 6:00-7:00 저녁식사 저녁 차리기 싫은데 억지로 차림. 시켜먹기도 함 7:00-8:00 큰아이 과외(전 과목 주3회 월/수 7시, 금 4시20분)	8:00-10:00 아이들하고 실랑이. "소리 지르고 셋이서 맨날 싸우거든요" 10:00 남편 귀가(아이들 얼굴 볼 시간이 거의 없음) 10:30 가족들 모두 잠
토	(9:30-11:00 큰 아이 주말체육) 10:00-12:00 4명이 모여 가정문제 내놓고 서로 기도해주는 모임. 3:00-4:30 ○○이 주말체육 저녁 식사 가끔 외식 저녁에 아이들 데리고 찜질방(가끔 남편도)		
일	9:00 미사에 참석/ 미사 후 가끔 외식. 가끔 친한 아이 엄마들(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이상 만남)과 아이들 데리고 놀러 다님		

을 유도하려는 어머니들의 생각은 자녀를 처음으로 학교에 보낸 어머니들의 불안에 기인한 것임을 보여주는데, '자신의 자녀의 이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고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들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학부모회'라는 시각의 결여 또는 학부모회의 활동의 결과가 활동당사자의 자녀가 아니라 전체 학생에게 돌아가도록 짜이지 않은 현행 학부모회의 상황[10]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한편, 유독 강현선 씨에게는 학부모회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한 명 뿐인 아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강현선 씨는 아이를 '가난한 동네에 있는 유명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보내다가, 좋은 중학교가 있는 동네의 공립학교로 전학시켰지만, 다시 사립학교로 돌려보냈다. 강현선 씨 이야기는 사립학교에서는 학부모회를 통해 자녀의 성적이 공개되고 그 것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공립학교로 전학을 간 후 학부모회를 통해 엄마들 사이에 교류도 별로 없고 아이에게 상을 주는 일도 없다고 한다. 자녀와 자신의 정체성을 긴밀히 연관짓는 강현선 씨는 자녀의 학교에서의 성취를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 주는 학부모회에 집착하게 된다.

(2) 촌지

촌지는 대부분의 전업주부에게 중요한 고민거리이다. 제보자들은 선생님이 자기자녀를 특별히 잘 돌봐주도록 교사를 고무시키기 위해 촌지를 가져다준다. 학부모들 간의 경쟁[11]으로 인해 촌지의 액수에는 한계가 없지만, 가계예산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전업주부를 힘들게 한다. 생활비가 여의치 않은 김미현 씨는 선생님에게 "촌지대신" 김치를 담가 주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제보자는 학기 초와 스승의 날, 그리고 추석과 학기말에 촌지를 할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촌지를 하는 제보자는 적으면 두 번 많으면 네 번 하는데, 장애 아이를 가진 김미현 씨의 경우에는 매달 촌지를 하고 있다. 촌지의 액수는 10만원에서 30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향수와 같은 선물과 함께 하기도 하고 현금으로 직접 하기도 한다. 제보자들은 '촌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촌지를 어떻게 주는 것이 효과적인가', '어떤 선생님은 촌지를 받고 어떤 선생님은 촌지를 안 받는가' 등에 관한 이야기가 엄마들 사이에 오고간다고 한다.

촌지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해야만 하는 이유로는 '선생님이 신호를 보낸다'고 느끼거나 '촌지를 내지 않는 경우 아이가 홀대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보자들은 촌지를 하는 것을 일종의 의무라고 여기면서도, 엄마들끼리의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 부풀려진 촌지를 하느라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촌지를 받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대부분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제보자들은 모두 촌지를 낸 후에 반드시 선생님의 긍정적인 반응을 애써 아이로부터 듣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정민 씨의 경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촌지를 하지 말라"고 권유한다. 이정민 씨는 "옆 사람들 말을 듣고 촌지를 했다가 마음이 불편해서 죽을 뻔 한" 경험을 하였다. 이정민 씨는 촌지와 관련된 엄마노릇을 거부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최근에는 둘째아이가 원해서 학교에 나가 서예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봉사활동의 부수적인 효과로서 "촌지를 안했는데도 교사가 아이에게 잘 해준다"고 하면서 "아마 그 분들은 좋은 선생님들이겠지요" 라고 말한다.

(3) 사교육

대부분 제보자는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 온 후 집에서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거나 아니면 학원에 가는 자녀의 스케줄을 체크해주고, 자녀가 기꺼이 사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감시도 한다. 면접 도중에 최현지 씨는 시계를 보다가 "○○야 가! 지금 나가!"라고 한 후 면접을 계속했는데, 금방 ○○의 동생이 "엄마 언니가 막 책을 던져"라고 말하자, 최현지 씨는 "지금 빨리 가야 돼. ○○야 늦겠다"라면서 학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어르고 또 협박해서 내 보냈다. 이런 장면은 자녀가 면접할 때 집에 있는 경우 흔히 부딪히는 광경이다. 연구자는 양선희 씨도 학원에 가기 싫어하는 고등학생 자녀를 '협박해서' 보내는 것을 보았다. 외부인인 연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선희 씨가 원색적인 협박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늘 그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로부터 '아이가 언제나 학원에 힘겹게 가고 있고, 가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현지 씨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았을 때, 나는 엄마'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10) 또한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학부모회는 경쟁적이고 과시적인 소비가 드러나는 현장이기도 하다. 강현선 씨는 옷을 잘 입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학부모회에 가며, 학부모회에서는 아이의 말이 때라 '교사가 잘 해 주는 아이'의 엄마의 옷차림과 자신의 옷차림을 비교하면서 그 엄마가 훨씬 잘 살고, 그래서 촌지도 많이 하여 교사가 그 아이에게 잘 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다른 제보자들도 옷을 잘 입고 가는 곳으로 학부모회와 백화점 그리고 교회를 들고 있다.

11) 이숙인(2001)에 따르면, 이 시대에 요구되는 어머니 역할은 타인과의 차이에 주목하고 경쟁과 비교를 주도하는 '매니저'로서의 역할이다.

엄마로 살기로 작정한 경우이다. 최현지 씨는 '남편의 좋은 머리를 물려받은 두 아이'가 자신의 관리에 힘입어 공부를 잘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도 뛰어와서 아이들을 맞아 오후 시간은 모두 '아이들 학원 챙기는 시간'으로 삼고 있다. 최현지 씨의 경우 월 생활비의 1/3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면서도 '너무 작다'라고 생각한다. 최현지 씨 가계는 최근 재테크실패와 남편직장의 재무악화로 인해 소득이 크게 줄어 든 경우이다. 다음 최현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자녀가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면 오히려 부모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피아노 원장선생님은 자기가 지금 시키고 싶대요. 예원중학교(예술전문 중학교임)를 보내고 싶으니까 지금부터 시켜주래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은 고맙지만 돈이 정말 그야말로 금똥을 싸야 돼요. 걔네들한테는. 저 그럴 능력 없다고. 그러니까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체능 나온 엄마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 그런데 어떻게 시켜볼까요 그랬더니 자기는 말리고 싶대요. 그랬는데 또 바이올린 선생님도 바이올린을 시키고 싶다는 거야. 쟤는 너무 소질이 아깝다는 거야. 선생님 사실은 쟤 다 잘한대요. 그랬는데 부모 마음에서는 그런 말 듣고 못시키는 내가 마음은 아파요. 솔직히. 아픈데 걔가 바이올리니스트도 될 수 있고 피아니스트도 될 수 있고 두 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워낙 아빠 머리 좋으니까 아빠 닮아서 공부나 잘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김미현 씨 경우에도 난청인 큰 아이가 학교공부를 따라가도록 하려고 집에서 과외를 시키거나, 작은아이의 '학원을 챙겨 보내는 것'이 오후의 일과이다. 그러나 이정민 씨는 '돌아다니기를 싫어하며 아이를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되도록 아이를 곁에 두고' 직접 가르치고 있다. 아이도 학원을 많이 다니기 싫어하여 어려운 영어문법을 가르치는 학원과 태권도 학원만 보내고 나머지는 이정민 씨가 봐준다. 심희경 씨 역시 사교육은 '직접 가르치기 어려운 영어와 피아노 정도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자녀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자녀의 시간관리와 더불어 아이의 특성에 맞는 사교육의 선택이 전업주부에게 보다 더 중요해진다. 제보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사교육 안배는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복잡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선희 씨의 경우에는 두 자녀가 모두 "깨끗한 일등"으로서 우수한 성적을 얻고 있다. 양선희 씨는 "애기의 능력이나 부모의 가정환경이 애기를 좌우하지,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조금(밖에) 도움이 (안)되는, 그러니까 세 박자가 맞았을 때 애기가 가장 잘 최상으로 자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양선희 씨는 부평에 살다가 아이와 맞지 않는 사교육선생님과 결별하는 방법으로 이사를 택했다. 양선희 씨는 "다른 엄마들의 권유에 의해 고액과외와 학원 종합반 등 여러 가지 사교육을 시켜보았으나, 고액과외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고 종합반은 죽는 시간이 많아 두 아이 모두 수준에 맞는 단과학원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둘째 아이는 큰 아이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단과반에 보내고 있다.

양선희 : 그거는 내가 중학교 때 겪어보기를 잘한 거야. 겪어보고 우리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죽은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정말 우리아이는 국,영,수가 ○○학원 다닐 때 너무 쉬웠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연구자: 그래서 둘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양선희 : 그래서 둘째 아이는 큰아이의 시행착오를 싹 감안해 가지고 무조건 단과로 돌리는 거야. 영어 지 수준에 맞는 거, 수학 지 수준에 맞는 거.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건 정답은 없어.

연구자 : 그럼 둘째 아이는 지금 뭐뭐 하죠?

양선희 : 영어 주2회, 수학 주2회, 그 다음에 이번에 3학년 과학이 3학년 경시 반 오늘 시험 봤거든요. 경시를 잠깐 준비하는 바람에 다른 거를 거의 못하면서 영어, 수학 주2회 억지로 피해서 다니고 국어나 이런 거는 못하고 과학경시에 한 달 동안 치중했었죠. 그런데 지금 졸업했죠. 오늘 시험 봤으니까 땡치고, 앞으로는 영수, 과학도 이제 하나 들어갈 생각이에요. 국어도 하나 들어가고

중학생 자녀 둘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윤미숙 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대학입시를 시도하지 못함에 따라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살릴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이다. 윤미숙 씨는 재능 있는 자녀들을 낳았고 남편의 소득이 뒷받침하고 또 자신이 재테크에 성공하여 세 자녀를 모두 예술 하는 사람으로 키워가고 있다. 윤미숙씨는 자녀들이 예술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레슨을 받을 때 차를 태워가고 레슨을 받는 동안 기다렸다가 데리고 온

다. <표 5>에는 윤미숙 씨의 생활시간표가 제시되어 있다. 중학생 자녀 둘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윤미숙 씨 역시 아이들에 대한 사교육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윤미숙 씨의 첫째아이와 둘째아이는 각기 예술중학교에서 현재 바이올린과 첼로를 배우고, 셋째 아이에게는 앞으로 피아노를 시키려고 한다. 윤미숙 씨는 두 아이 모두 '큰 테두리를 봐주는 사람과 연습과 테크닉을 세세하게 봐주는 사람'에게 주 1회씩 과외를 시키고 있으며, 주 4회 아이들을 차에 태워다 주고 레슨 받는 동안 기다리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 그리고 윤미숙 씨는 학원까지 오가는 시간을 절약해서 연습시간을 벌게 하려고 두 아이 모두 수학과 영어 과외는 집에서 시키고 있다.

윤미숙 씨는 과외교사를 고를 때 자녀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거쳐 결정하며, 그 결과 성격이 다른 두 아이에 대해 각기 다른 선생님을 골랐다. 윤미숙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매월 관리하는 500만원 중 300만원 정도가 사교육비이다. 원하는 사교육을 하기위해 예산을 맞추는 일은 윤미숙 씨에게도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 윤미숙 씨는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한다. 그 중 하나는 아이들이 중학생임을 고려해서 과외교사를 선정할 때 '좋은 대학교의 비전공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가격을 낮추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아이들 옷을 살 때 백화점에 데려가 보여준 다음 터미널 지하상가에 가서 가격을 비교한 후 '가격과 질의 상관관계가 낮으므로 싼 옷을 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가르친 후 사준다고 한다. 윤미숙 씨는 자신이 건강을 잃으면 '온 가족이 쓰러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 2회 오전시간을 이용하여 등산을 한다고 한다. 또 '아이들을 제대로 인도하기 위해' 매일 아침 새벽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가다듬는다고 한다.

(4) 자녀의 성적 부진과 입시실패

그러나 자녀들의 성적이 '돌이킬 수 없이 판가름 난 경우'에는 사교육에 관한 관심이 다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진화 씨의 경우에는 큰 아이가 명문대에 입학한 반면 둘째 아이는 '열등생'이다. 서진화 씨는 큰 아이를 키울 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그다지 아이 교육에 몰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서진화 : 제가 큰 딸을 키울 때는 정말 성적이 90몇 점에서 1점만 떨어져도 막 머리 싸매고 눕고 그랬거든요 실은. 머리가 아팠어요. 진짜 머리가 진짜 내가 절제한다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별로 머리가 안 아파요. 실은.

연구자 : 그때는 왜 머리가 아프셨을까요?

서진화 : 그러니까 내가 얘는 꼭 좋은 대학을 가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주변에서 다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

<표 5> 윤미숙 씨의 생활시간표

구분	오 전		오 후	저 녁
월	5:10 기상 5:30-6:30 기도(남편은 6시 운동시작 테니스 9시 샤워 후 출근) 반드시 밥+국+김치(손수 만들고 그것도 여러 가지로)로 아침식사준비, 도시락 싸기 7시 아이들깨우기, 밥먹여서 학교 보내기	9:30 교회에 감. 1:30 점심식사 후 귀가 등산 후 식료품 쇼핑, 집안정리, 빨래	3:30-10:30까지 아이들에게 전념 막내 2:30귀가 가능하면 집에 있고 저녁준비하기 큰 딸과 둘째 딸 3:30 귀가 간식먹이고 충분히 재우기 남편 보통 8시 귀가 주2회 11-12시 귀가	
화				
수				
목				
금				
토		가족들과 점심 저녁시간 공유하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가족단위 식사준비를 한다. (외식할 비용으로 직접 재료를 구입하여 만들면, 깨끗하고 저렴하다. "나는 식사를 잘 만든다.")		
일	모처럼 8시까지 늦잠 9:30 식사/막내 교회 태워다 주기/남편은 운동가서 점심까지 먹고 옴/ 두 딸 교회예배(오후에는 쉬기)			일요일 저녁도 가족단위 식사(일주일간 못 만난 시간 채우기)

요.....첫 아이고, 주위에 살아온 우리 시댁, 이런 환경들이 공부해야 되고, 저 자신도 그렇고,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주변 조카들과 동생들이 학벌이 그런 대로 괜찮고 하니까 그래서 좋은 데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는 상위권에서 1점만 떨어져도 머리가 아프고 그랬거든요.

서진화 씨는 둘째 아이의 수학실력을 올리기 위해 혼자 하는 '월 50만 원이나 하는 명문대 대학원생 과외'를 7개월간 했지만 효과가 없어 그만두었고, 학원도 안 보내고 있다. 학원에서도 고객관리차원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아이만 받아주기 때문이다. 서진화 씨는 아이의 동기부족과 학교수업태만으로 학교성적 부진의 이유를 돌리고 있다.

서진화 : 관심이 있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문제가 지금 학원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수업을 제대로 안 듣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학원 보내 봐도 별효과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왜냐 하면 학교 수업내용이 충실해야 학원이 뒤따라오는 것인데, 학원 보내 놔 봐야 머리 속으로 딴 생각하는 거 제가 알고 있고. 왜냐 하면 외우는 건 비상한 거는 알고 있거든요.

연구자 : 그러면 왜 그 아이는 학교수업을 열심히 안 했죠? 엄마가 도와주실 부분은 없어요?

서진화 : 글쎄 그건 잘 모르겠네. 진짜 그런데 지금 성격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기가 원하면 집중을 하고 안 하면 집중을 안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공부에 대한욕심이 없고, 이것을 이루어서 내가 한 단계 올라가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고.

서진화 씨는 최근 시작한 교회생활을 통해 공부 못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귀중한 존재가치를 찾았고, 그 때문에 과외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다고 한다.

연구자 : 둘째 아이에 대한 걱정은 안되시나요?

서진화 : 글쎄 그렇게 막 걱정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아주 뻗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몰라요. 그 원인은 나도 몰라요. 그게 믿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과외를 바라보는 눈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연구자 : 왜 어떻게 바뀌신 거예요?

서진화 : 그 전에는 세상적인 욕심에서 하나님 아래서 보니까 다 귀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도 다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드니까 정말 머리가 덜 아파요, 실은. 그 전에 우리 딸 같으면 저렇게 성적을 받아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난리를 치죠. 그런데 이제 뭐 달래서 이번에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성적이. 조금 낫긴 해서. 그리고 조금 걱정은 기초가 조금 약해서 하긴 하는데, 주위에 큰 아이를 키울 때는 못 봤는데 조금 돌러보니까 중학교 때 잘 했다고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고, 또 그게 사회하고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해졌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세상사는 게 뭐 공부, 이렇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게 아 정말 그렇구나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자녀를 통해 세상을 둘러보게 되고 새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서진화 씨는, 자기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아이의 상태와 맞는 세상이치에 관한 담론으로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을 수용하고 있다. 자녀의 실패를 통해 가치관이 바뀐 것은 양선희 씨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양선희 씨의 아들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먼저 양선희 씨는 자신을 자녀와 동일시한 나머지 자녀가 실패할 때 '자신이 창피했다'는 점과 '공부에서나 인생에서 실패하거나 조금 못하는 사람의 심정을 공감하게 되는 변화를 겪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거나 우리 아이가 1등한다든가 하면 내가 우쭐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목에 깁스가 들어가는 거야. 내 남편 뭐 그냥 그럭저럭 아까 말한 의사 그런 식으로 살고. 우리 아이들 뭐 맨 둘 다 반장하고 뭐 이러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서 전혀 안 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전혀 그럴 부분이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과고를 떨어지면서 항상 엄청 되게 챙피하고 막 남들은

다 그렇게 안 보는데.....한 달 동안인가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이 거기에 목표, 내 인생의 가치를 너무 크게 둔 거였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닌데 별 것도 아닌데, 살아가는 과정에 극히 하나의 작은 과정이었을 뿐인데, 그때는 막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고 막 사람들 너 진짜 잘난 척 하더니 진짜 뭐 고소하다 뭐 이러는 것 같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그런 삶을 내가 산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너무 이렇게 나를 잘 넘어뜨려 준 거에요. 정말 잘 넘어뜨려 준 거예요. 그때 나는 우리 아이가 떨어지고 나서 나는 너무 영적으로 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내가 생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어디 대학을 가든 어떤 식으로 길을 걷던 간에 오히려 아이기를 더 큰 인물을 만들어 줄려고 이렇게 많은 하는 생각을,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생각도 모르고 잘난 맛에 이렇게 막 가고 남도 볼 줄 모르고 남 아픔도 모르고 그렇게 갔을 텐데 지금은 남 아픔도 조금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못하는 사람 심정도 알고, 2등의 마음도 알고. 나는 1등만 하다보니까 2등의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내 잘난 맛에. 공부만 비유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남편이 우리가 요즘 사는 게 남 보다는 조금 더 살잖아요.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의 깊은 마음을 절대 몰랐던 거예요.

전업주부 제보자들은 자녀가 공부에서 실패를 함에 따라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 자녀교육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도전과 기회를 통해 가치관도 변화한다.

3.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본 "아버지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의 성격"

이제 자녀양육과 교육에 아버지가 개입되는 방식을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자. <표 6>에서 보듯이 개업의인 정하진 씨 남편과 강현선 씨 남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편은 귀가시간이 늦고 불규칙하다. 제보자

<표 6> 전업주부들이 본 남편들의 시간표

구분	남편직업	평일귀가시간/늦는시간	귀가 후 활동	주말에 시간 보내는 방법
김미현	전문대 교수	10시 야간수업과 연구	10: 30분에 잠 아이들 얼굴 볼 시간이 없다.	토요일저녁에 찜질방 가기 일요일에 성당가고 점심 외식, 저녁 집에서 식사하기
이정민	건축사무소 건축사	10~11시 집에 일할 공간이 없음 (가끔 회식때 12~1시)	씻고 자기(아무리 늦어도 큰 아이 수학을 봐줌)	남편 토요 골프 일요일 교회가기
서진화	외국인회사 사장	6~6:30 / 한달에 두 번 정도 12시 귀가(회식)	저녁 먹고 휴식 TV시청	가족단위 교회 참가 간단한 외식
최현지	증권회사	7~9시, 일주일에 2~3회 새벽에 귀가/ 회식으로 술 먹고	TV보기	남편 토요 골프, 시민공원 놀이동산 찜질방 등 가족과 함께 보냄 할인점 쇼핑
정하진	개업의	평일 7: 40 칼퇴근 토요일 5시	날씨 좋으면 공원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기 아닐 때는 책 읽기	일요일 오전 아내와 아이들 교회 남편은 수면 오후에는 시댁 방문
강현선	개업의	3회 8시,3회 자정이후 이유 없이 자정 넘기면 벌금	TV보기, 아이와 함께 모두 자기	꼼짝 않고 집에 있음
이유재	사내벤처 팀장	10~11시 업무 때문	오자마자 씻고 잠	토요일 백두대간 타는 모임에 1박 2일로 참석, 안가는 날 토요일 근무하고 오후 7시에 만나 할인점 쇼핑 후 외식
윤미숙	개인사업	8시, 주 2회 11~12시 사업상 접대	쉬고TV보기	토·일저녁 집에서 가족식사, 일요일 혼자 테니스 가서 점심 먹기
심희경	이동통신 회사 사원	8: 30,주 2회 10시 야근	쉬거나, 주 2회 교회모임. 부부 참석	격주 토요 운동하고 할인점 가기 일요일 교회 집회 가족단위 참석
고현정	건설회사 직원	8: 30~9(아내가 식사하고 오라고 해서 이때 옴) 야근하면 한 번씩 11시	쉬고 TV보기	토요 3시 귀가해서 아이에 대한 부담만 넘기고 남편은 아이와 함께 TV보기, 놀이터가기, 백화점지하 서점가기
양선희	개업의	7: 30분 "칼퇴근"	쉬고 TV보기	주말에 아이들과 자전거 하이킹

들은 업무상 회식으로 인한 남편의 늦은 귀가를 수용하고 있다[12]. 남편이 일찍 귀가하여도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상당한 도움'으로 여긴다.

남편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보면, 평일에는 귀가 후 집에서 쉬기 주말에는 개인적인 운동과 휴식 그리고 종교 활동과 외식 · 놀이 · 장보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평일에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보면, 3세와 6세 딸을 가진 정하진 씨의 남편은 매일 공원에 가서 아이와 놀아주거나 비가 와서 산책이 여의치 못할 경우, 책을 읽어준다. 또 이정민 씨 네는 초등학교 6학년 딸에게 아버지가 매일 아무리 늦어도 수학을 가르쳐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버지는 주중에 귀가 후 자녀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성장한 자녀를 둔 서진화 씨나 최현지 씨 같은 제보자는 '교육의 현장인 집에서 파트너인 남편이 본(model)을 보여 주었으면'하지만, 남편은 주로 tv만 본다는 것이 불만이다. '집'에 대한 의미가 전업주부와 남편에게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전업주부로서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현장이 바로 집인 반면에 남편으로서는 집이 휴식의 장소이다.

주말에 가족이 함께 하는 일을 보면, 김미현 씨 이정민 씨 서진화 씨 심희경 씨네는 온 가족이 함께 성당이나 교회에 간다. 이와 달리, 온 가족이 다른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경우로 최현지 씨네는 시민공원, 놀이동산, 찜질방 등에 그리고 고현정 씨네는 놀이터나 서점에 그리고 양선희 씨 네는 자전거 하이킹을 나간다. 강현선 씨네는 온 가족이 그냥 꼼짝 않고 집에서 쉰다. 또 한 부류로는 "주말에 남편은 따로, 아내와 자녀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정하진 씨와 이유재 씨 그리고 윤미숙 씨네가 있다.

한 편, 제보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전업주부를 둘러싸고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엄마역할과 아내역할은 갈등을 일으킴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가정은 우선적으로 자녀교육의 현장이기 때문이며, 부부가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녀교육으로 인해 모성의 일상이 Harbermas의 용어대로 '생활세계의 식민화'로 특징지어짐에 따라,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활동이 가족생활의 핵심이 됨으로써(심영희, 2000) 부모-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와 도덕 인성교육의 소멸은 물론이고 그에 방해가 되는 어떤 다른 요소도 배제되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다. 생활시간표나 재무관리 측면에 관한 이야기, 혹은 자녀교육의 성과를 놓고 벌어진 상황들을 볼 때, 남편은 아내의 궁극적인 감시자요 아내의 자율성은 이러한 한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경(2003)에 의하면 한국가족의 강한 부계전통과 핵가족의 이상- 제보자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른 귀가와 주말을 함께 보내는 남편, 일상생활의 이슈와 정서를 공유하며 아내의 삶을 인정해주고 보상해주는 남편'이라는 각본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 부부간 갈등의 요인이 된다고 한다.

Ⅳ.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전업주부의 '자식 키우기 경험'이라는 주제 중심의 문화 기술적 사례연구로서 자식 키우기에 관한 부부간 기본적인 분업의 성격과 전업주부의 양육경험의 구조와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자녀 양육을 둘러싼 부부관계의 경험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요컨대, 전업주부의 일상생활에서 자녀 교육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녀의 등 · 하교시간과 사교육시간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구조와 생활공간 그리고 관심을 지배한다. 그러나 자녀에게 쏟는 시간이나 관심의 종류는 자녀나이에 따라 달라 아이가 커가면서 그로 인한 시간제약은 완화되지만 자녀들의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은 더욱 복잡하다.

학부모회와 촌지와 사교육 등에 관한 이야기에는 자녀와 교사에 대한 감시와 엄마노릇에 대한 자기감시가 들어 있다. 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자녀의 경쟁이 엄마의 경쟁과 동일시되는 현장으로서, 그리고 그 자녀가 저학년인 경우 자녀인생의 시작부터 이익을 주기 위해 교사에게 접근하는 통로로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촌지에 관한 담론은 교사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제보자 자신의 가치와 행위에 있어서 이율배반적 속성을 띰으로써 전업주부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학부모회나 촌지의 경험은 학모들 간의 무한경쟁에서 나타나기 쉬운 몇 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자녀가 경쟁에서 이기도록 한다기보다는 최소한 뒤처지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교육은 가계지출 가운데 막중한 비율을 차지하여 제보자들이 관리하는 지출 중 적으면 17%, 많으면 60%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들은 사교육비지출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작다고 생각하며, 가계재정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사교육비를 유지하고자 다른 비목을 우선적으로 삭감시키려고 한다.

12) 남편들의 귀가시간과 귀가 후 활동역시 제보자들의 보고를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자녀들이 자라면 전업주부는 점차 입시관리자로서 준비를 해 가면서 자녀의 재능을 찾아내고 자녀의 입시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을 조직화하는데 몰두한다. 따라서 전업주부는 장기간의 긴장상태를 지속하게 된다. 사교육에서 시간낭비 없는 이동과 감시를 위해 '차 태워주기'도 엄마의 부담인데, '테크놀로지가 발달하여 가사노동이 오히려 증가한 측면'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 운전이다(루스 코완, 1983).

이상 제보자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야기를 인용함으로써 자녀의 양육과 교육과 관련된 생활경험을 살펴보았다.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의 테마는 모성정체성과 관련된다. 자녀양육과 교육과 관련된 일상생활의 경험은 다양한 역할과 그로인한 무거운 부담들을 포함하였다. Chodorow 와 Contratto(1992)는 여성들이 어머니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한 것도 있지만, '완벽한 인간상'을 전제로 한 모성역할 때문이라고 한다(김명혜, 2000:25에서 재인용). 자녀의 학업성취와 대학입시의 성패로 인해 자녀교육위주의 모성정체성은 유지될 수도 있고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낳은 경쟁적 교육체계로 인해 어머니들은 모성정체성을 통해 총체적인 정체성을 보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고자 했던 것은 전업주부들의 자식 키우기에서 전업주부들 내부의 다양성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 속에 남들과 다른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고자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행위성(agency)이 있는가하는 것이다. Ⅲ장을 통해 제시된 소주제별 제보자들의 경험은 그들이 가진 가치관과 배경에 따라 다르며 또한 성찰적 선택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제보자들의 자식 키우기는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 그들과 놀아주는 방법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사교육 선택, 학부모회참여 그리고 촌지관행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차이는 가치관의 반영이자 아이의 특성이나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사정과 같은 제약조건을 반영한다. 자신만의 생활양식에 따라 자녀를 길러보겠다는 데에는 그러한 가치관과 제약조건 등이 반영되는 것이다. 전업주부내부의 다양성은 객관적 조건의 상이성뿐 아니라 가치관의 상이성 그에 따른 주체적 선택의 상이성을 포함하므로, 전업주부가 기계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의해 반응하는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성이데올로기의 억압적 측면을 드러내고자 한 연구의 결과 전업주부에게서 행위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윤택림,1996)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식 키우기에 있어서 제보자들에게서 발견되는 행위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나친 사교육의 압력'을 거절하고자 엄마들은 준거집단을 재조정하였다. 제보자들은 준거집단을 열망집단과 회피집단으로 구분지어 함께 '행동을 할 바람직한 사람들'과, '쓸 데 없이 돈을 낭비하고 애들에게 불필요한 것을 가르치느라 애들을 힘들게 하는 몹쓸 사람들'로 나누고 후자로부터 느끼는 압력에 대해 준거집단의 지지를 빌어 저항하였다. 또한 등산과 같은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켜 자녀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자신을 지키고자 하였는데, 종교 활동도 엄마로서 자신을 지키고자하는 면에서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졌다. 또한 사교육을 하나라도 더 시키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사교육비를 미리 벌기 위해 취업을 시도하는 것도 어머니들이 선택한 것이다. 자녀들이 학교교육에서 성적이 부진한 경우나 입시에 실패한 경우에도 전업주부들은 유리한 새로운 담론을 수용하여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그러한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보자들이 뛰어난 자녀, 학교성적이 좋은 자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만을 상정하므로써, 학벌사회의 경쟁적 자식 키우기라는 한계 안에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제보자들이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다른 방식으로 자식 키우기'라는 대안적 담론의 생성과 보급은 전업주부 안에 있는 새로운 행위성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개발과 경쟁, 지식과 획일 그리고 폐쇄성과 배타성을 초래한 공교육체계와 그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방식의 자식 키우기에서 보다 생태주의적이고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중시하고 지식보다는 전인성의 가치를 중시하고 획일성보다는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자식 키우기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립되어 산재하는 전업주부 개인으로서는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압력이 될 것이므로 소모임 활동이나 공론화가 필요하다.

또한 전업주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어머니로서'라고 할지라도, 삶의 영역을 확대하여 다른 욕구간 균형을 추구하는 것 새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경아(1997:140쪽)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심리적 부담은 모성과 자아의 갈등으로 그러한 갈등에 적응하는 양식을 보면, 전통적 어머니 역할을 강화하는 것 아니면 어머니 경험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한다.

끝으로 사회적으로 변화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를 보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전업주부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공간-이를테면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유아를 가진 어머니들이 가서 아이를 맡겨놓고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다른 엄마들과 담소도

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 을 공공재로서 마련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하면 '날씨에 관계없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백화점'이라는 서글픈 환경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에서 전업주부의 보조를 당연시하는 전제의 폐기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기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학부모-교사회(Parent Teacher's Association)의 형성, 그리고 촌지관행의 폐기 및 과다한 사교육 필요성감소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전업주부들이 모성정체성에 모든 것을 다 걸 필요가 없도록 다양한 정체성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물론 당사자와 전업주부들의 소모임 그리고 전업주부들에게 사회적 존재감을 실현하도록 해 줄 진정한 자원봉사영역의 개발을 뜻한다. 이에 더하여 여성취업에 대한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전업주부직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되게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전업주부, 자녀교육, 학교교육보조, 사교육, 촌지

참 고 문 헌

김명혜(2000). 여성들의 가족 내 역할수행-광주광역시의 중산층 사례연구, 한국문화인류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1-24.

김선미(2004), 30 · 40대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경험과 정체성유지를 위한 대응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선미 · 이기영(2002).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 관점에서 본 전업주부정책. 한국생활과학회지,11(1),13-29.

김유경(2004). 취학전 교육상품의 기대편익에 따른 주부의 유형화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창대(2004). 대상관계, 2004 하계 제 1 차 한국아동학회 아동상담사 워크샵자료집, 19-33.

노영주(1998). 초기모성경험에 관한 문화 기술적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 박사학위논문

루스 코완 저(1983). 김성희 역(1997). 과학기술과 가사노동. 서울:학지사.

문옥표(1997). 도시중산층의 가족생활과 주부의 역할, 성, 가족, 그리고 문화, 서울: 집문당, 189-234.

송혜림(2002). 한국기혼여성들의 정체감과 역할 비중 비교연구: 모성의 중심성과 한국문화의 특유성, 세계적 전망에서의 한국학, 제6회 환태평양 한국학 국제 학술대회자료집, 218-224.

신경아 (1997). 한국여성의 모성갈등과 재구성에 관한 연구 -30대 주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옥선화 · 성미애 · 배희분 · 이재림(2002).빈곤 여성가장의 대처전략에 관한 질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6), 223-243

윤택림(1966), 생활문화 속의 일상성의 의미. 한국여성학회 제 12차 춘계학술발표대회자료집 생활문화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203-242.

_____(2000). 한국의 모성, 서울: 미래인력연구원.

_____(2002). 질적 연구 방법과 젠더 : 여성주의 문화기술의 정립을 향하여, 한국여성학, 18(2), 201-229.

이숙인(2001). 전통담론을 통해 본 어머니, 여/성 이론, 4, 8-34.

이재경(2003). 가족의 이름으로, 서울 또 하나의 문화.

이현아(1994).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정생활문제에 관한 부부의 지각-장시간 근로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

조용환(1999). 질적 연구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조혜정(1981). 부부간의 권력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본 취업, 비취업주부의 연구, 한국사회학, 15, 37-47.

_____(1997). 한국의 가부장제에 관한 해석적 분석, 성, 가족, 그리고 문화, 9-72.

Allison, A. (1996). Producing Mothers, In A. Allison, Permitted and Prohinited Desires, Boulder, Co:Wesview Press.

Spradley J.P(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o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이희봉 역(1996).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06. 30 접수; 2004. 08. 01 채택)